‘기생충’ 대종상영화제 최우수작품상 등 5관왕

감독상·시나리오상·여우조연상·음악상
남녀 주연배우상에 이병헌·정유미

봉준호 감독

지난해 칸영화제와 올해 초 아카데미를 휩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으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3일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 11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기생충’은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시나리오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등 5개 부분에서 수상했다.

‘기생충’

제작사 바른손 E&A의 곽신애 대표는 봉준호 감독을 대신해 수상자로 무대에 올라 “아까는 짐작으로 수상 소감을 했는데 대부분은 맞혔다”며 “힘든 시기에도 계속되는 대종상을 받아 영광”이라는 봉 감독의 소감을 전했다.

앞서 곽 대표는 감독상도 대리 수상하면서 “봉준호 감독이 8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며 홍보 활동을 했고, 2월에 일정을 마치며 장기 휴가에 들어가 대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봉 감독이 ‘함께 해 준 배우, 스태프, 바른손과 CJ에 감사한다’고 했을 것 같다.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분들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곽 대표는 “2018년 이즈음에 현장에서 이 작품을 만들고 있었고 작년 이즈음에 극장에서 관객을 만났다. 현장에서 영화를 같이 만들었던 분들, 관객이 너무 그립다”며 “어려운 시기를 다 같이 극복해서 다시 즐겁게 마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객 없이 열린 시상식에는 봉준호 감독 외에도 주요 수상자들이 불참했다.

주연상은 ‘82년생 김지영’의 정유미와 ‘백두산’의 이병헌에게 돌아갔다.

정유미를 대신해 무대에 오른 김도영 감독은 “정유미 씨가 촬영 중이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며 “감독으로서 기쁘고 영광스럽다. 김지영의 얼굴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무대에 오른 이병헌은 “‘백두산’이 재난 장르 영화인데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 어떤 재난보다 더 영화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시상식장이 낯설지 않은 편인데 오늘은 유난히 낯설고 어색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극장에서 편하게 영화를 보신 지 한참 되셨을 것“이라며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예전처럼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웃고 울고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연상은 ‘기생충’의 이정은과 ‘극한직업’의 진선규가, 신인상은 ‘죄 많은 소녀’의 전여빈과 ‘유열의 음악앨범’의 정해인이 받았다.

대종상영화제에서 세 차례 남우주연상을 받은 원로 배우 신영균이 공로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혁신’ 시도했지만…대리수상·무관중에 맥빠진 대종상 시상식

봉준호 등 주요 수상자 불참

개최 시기를 옮기며 ‘혁신’을 다짐했던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이 우여곡절 끝에 열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주요 수상자들이 불참하면서 다소 맥 빠진 채 진행됐다.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3일 열린 제56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은 코로나19 여파로 관객 없이 진행됐다. 많지 않은 참석자들 역시 띄엄띄엄 거리를 두고 앉았다.

영화제 주인공이었던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들을 비롯해 다수 수상자와 후보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시상식은 감동의 수상 소감 대신 신속한 대리 수상이 채웠다.

지난해 칸영화제부터 올해 초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5관왕에 올랐지만, 감독상과 음악상 수상자인 봉 감독과 정재일 음악 감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제작사인 바른손 E&A의 곽신애 대표와 공동 각본가로 상을 받은 한진원 작가가 두 차례씩 무대에 섰다.

문광 역으로 여우 조연상을 받은 배우 이정은만 레드카펫에 올라 직접 소감을 밝혔다.

무관중 영화제에 배우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매년 가을 열리던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은 올해부터 2월로 시기를 옮겨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한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관객 없이 진행됐다.

개최 시기가 바뀌면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개봉한 영화들이 심사 대상이 됐다.

1962년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한 대종상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 시상식 중 하나지만, 정권 입맛에 맞는 작품 위주로 시상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상자(작)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에 더해 주최·주관 기관의 내부 갈등까지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2015년 시상식에서는 참석하지 않으면 상을 주지 않겠다고 해 주연상 후보 9명 전원을 포함해 감독과 스태프까지 불참하면서 시상식 권위가 추락했다.

2018년에는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던 출품제를 폐지하고 개봉작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지만, 수상자 절반이 불참한 상태에서 영화와 상관없는 사람이 대리 수상하는 등 미숙한 운영으로 다시 구설에 올랐다.

한국 영화 100년이었던 지난해에는 시상식이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예정됐던 시상식을 올해 2월로 옮기면서 미국 아카데미처럼 한 해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영화계를 결산하도록 혁신과 자구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시도가 다소 무색해졌다.

/연합뉴스

‘깡 열풍’ 비, 진짜 새우깡 모델 됐다

박재범·김하온 등과 함께
‘깡’ 리믹스 버전 발매도

가수 비

‘깡 신드롬’을 타고 새롭게 인기 상한가를 기록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8)가 결국 새우깡 광고 모델로 발탁됐다.

비 매니지먼트를 맡은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는 4일 “비가 1971년 출시된 스낵 ‘새우깡’ 모델로 발탁됐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돼 더욱 뜻깊다”고 전했다.

농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의 새우깡 모델 발탁 소식을 전하며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로 섭외를 요청하는 데 힘입어 비를 모델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광고는 대중들이 만들어낸 ‘깡’ 열풍처럼 비와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농심은 새우깡과 ‘깡’ 트렌드를 즐기는 영상을 응모하는 ‘새우깡 대국민 챌린지’를 통해 비와 함께 광고를 만들 계획이다.

비는 2017년 내놓은 미니앨범 ‘마이 라이프 애’(MY LIFE 愛) 타이틀곡 ‘깡’ 뮤직비디오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최근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깡’ 뮤직비디오는 처음에는 다소 오글거리는 콘셉트와 자신감이 과한 가사, 트렌드를 비껴간 과격한 안무로 조롱받았다.

그러나 유튜브 댓글창에 모여든 누리꾼들은 묘하게 중독성 있는 뮤직비디오를 즐기면서 비를 놀리는 대화를 주고받다가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어 냈다. ‘깡’ 뮤직비디오는 ‘1일 1깡’(하루에 한 번 ‘깡’ 뮤직비디오를 본다)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유튜브 1200만 뷰를 넘겼다.

비도 직접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 출연, 자신을 희화화하는 데 초연한 면모를 보여주며 대중의 호감을 얻었다.

비는 최근 ‘놀면 뭐하니’에서 “(매니저 전화에) 진짜 불이 났다. 광고도 섭외가 많이 온다”며 “깡이란 깡은 다 (섭외가) 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트렌디한 음악을 선보이는 힙합 레이블 하이어뮤직 소속 래퍼들과 함께한 ‘깡’ 리믹스 버전도 이날 오후 6시에 공개한다.

하이어뮤직 대표 박재범을 비롯해 김하온, 식 케이, pH-1이 비와 호흡을 맞춰 힙합 느낌을 더 살렸다. 비는 이들과 함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다.

/연합뉴스

‘버거소녀’ 양미라, 엄마 됐다

결혼 2년 만에 득남

햄버거 CF를 통해 ‘버거소녀’로 사랑받았던 배우 양미라(38·사진)가 엄마가 됐다.

양미라의 남편 정신욱 씨는 4일 인스타그램에 양미라의 아들 출산 소식을 알렸다.

그는 “진통 1시간 만에 식은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힘 두 번 주고 순풍”이라고 쓰며 갓 태어난 아들의 발을 공개했다.

양미라는 2018년 10월 4년 열애 끝에 정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TV조선 스타 부부 관찰 예능 ‘아내의 맛’에도 함께 출연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뮤엠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엠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 앞)
십전대봉탕, 쌍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조청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유)신 화 로 프
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 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퀸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신 신 예 술 의 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만 福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 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본위
☎ 062)412-1961, 010-5828-1961

미 가 한 우 명 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무크 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

한 성 꽃 화 원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자연모가발 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남여 가발 맞춤 전문!
중형가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 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남 문 냉 동
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

우 리 뷔 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대성각 중화반점
동구 무등로306-6 (구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